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 및 로드맵 작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 Road Map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곽 동 철(Dong-Chul Kwack)**

목 차

- | | |
|-----------------------|-----------------------|
| 1. 서론 | 5.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개선방향 |
| 2.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경영 실태 | 6.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 |
| 3. 대학도서관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 | 작성 |
| 4. 대학도서관의 환경 분석과 발전전략 | 7. 결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경영의 활성화 및 지식강국화를 위해 제반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id- and long-term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management of academic libraries in Korea and strengthening the knowledge-based society, which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major trends and problems that academic libraries in Korea have been currently facing are analyzed, and development strategies and a plan of operations for various tasks, which are aimed at improving the overall environment of academic libraries, are suggested. Also proposed is the road map of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academic libraries on the national level,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findings in this study.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경영, 도서관정책, 로드맵, 전략적 계획, 도서관통계
Academic Library, Library Management, Library Policy, Road Map, Strategic Planning,
Library Statistics

* 이 논문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하여 재작성함.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화정보학부 문헌정보학전공 교수(kwackdc@cju.ac.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12월 11일

1. 서론

오늘날 한 국가의 지식정보의 자산화 및 지식강국화는 유능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실험 인프라, 그리고 최적의 학술연구정보가 투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연구생산성이 제고되고 지식정보의 축적량이 누적될 때 구현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학술연구정보는 모든 연구개발의 동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유로 선진국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국민들의 학술연구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변 국가들과 함께 또는 자국내 유관기관들 사이의 효율적인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선진국들이 지식정보사회의 전개와 함께 대학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가 핵심인재양성을 위한 기초시설로서 대학도서관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이제 한 대학의 자체적인 성장은 물론 기업체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활동 및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정보 유통기지로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사실상 해당국가의 학술정보유통에서 가장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학도서관이다. 그리고 순수 기초학문 분야를 비롯하여 산업경쟁력에 직결되는 첨단산업 연구개발정보의 절대적인 부분이 대학도서관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는 시대적 대세로 확인되고 있다. 그 결과 국가차원의 학술정보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인 동맥으로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수립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4

년 3월 5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대학의 '교육기본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학술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 핵심기반시설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도서관은 공부방 열람실 중심의 활용, 국가 공공기반시설로서의 기반 취약, 기본 지식정보자원의 부족, 대학도서관간 연계 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지식축적량은 1980년 이후 20년 동안 10배 신장하였지만 미국의 1/17, 일본의 1/7.4에 불과하고, 대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OECD 22개 국가 중 15 위에 불과한 실정에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인프라의 핵심기지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학도서관이 그동안 대학당국의 무관심 또는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 대학 내에서조차 위상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도서관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선진국의 대학도서관과 비교할 때 대학 내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유사한 도서관 관련 사업들을 수없이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실천력 부족과 함께 부처별 또는 기관별 이기주의 및 주도권 경쟁 등의 탓으로 도서관 관련 사업들이 복잡하게 얽혀 국가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예산과 인력 및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

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도서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인적·물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은 대학도서관 기능의 확대 및 강화, 지식정보자원의 확충, 도서관간 연계체제 구축, 산학협력 및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대학도서관의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의 모색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의 일원화, 대학도서관 정책 통계의 표준화, 대학도서관간 참고봉사 협력망의 구축 방안 등도 연구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룰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내용의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경영 실태

2.1 국내 대학도서관의 국제적 위상 비교

우리나라 대학들의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이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도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과 비교하면 너무 열악한 상태로 조사·분석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의 순위가 대학도서관의 순위와 비례한다는 사실은 <표 1>과 같이 몇 가지 자료를 참조하면 곧바로 확인되고 있다. 즉, 어느 대학이건 대학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한다면 대학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겠다.

2.2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

대학도서관은 직원수, 장서수, 연속간행물 구독종수, 자료구입비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음의 <표 2>에서와 같이 국·공립대학도서관 60개관, 사립대학도서관 198개관, 전문대학도서관 157개관, 각종학교 도서관 20개관으로 모두 435개관의 대학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이 표에서 소장 장서 수는 국내서, 국외서, 고서를 함께 집계한 것이며, 연속간행물 종수는 국내·외 인쇄매체의 학술지만을 더한 수치이다.

2.3 대학도서관의 해외 지식정보자원 연간 수집 현황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운영 현황 가운데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현황 및 연간 증가량은 <표 3>과 같다(한국도서관협회 2004, 박동철 2005). 이는 전자출판물을 제외한 인쇄매체의 지식정보자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국내 대학도서관들이 1년간 수집한 국외 도서는 전년도에 비해 347,951권 증가한데 비해 해외 연속간행물은 17,454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들어 해외 연속간행물의 수집 종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은 대학도서관이 도서관구입 예산의 감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존의 종이매체 학술지의 구독을 중단하고 전자저널이나 웹 데이터베이스의 구독을 늘려가고 있는 것도 커다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표 1〉 대학순위별 도서관의 단행본·연속간행물·예산 현황

대학 순위	대학명	단행본			연속간행물		자료구입예산(\$)
		소장권수	ARL 순위	연간 증가량	구독 종수	ARL 순위	
1	Harvard U.	15,181,349	1	288,584	103,638	1	26,534,161
4	UC Berkeley	9,572,462	5	203,950	81,121	3	16,291,361
11	Yale U.	11,114,308	2	217,881	61,649	7	24,965,321
14	동경대	8,112,000	<8>	127,088	37,521	<34>	Y1,743,095
19	U. of Michigan	7,800,389	7	173,081	74,664	5	19,235,775
20	U. of Washington	6,436,960	14	164,617	48,740	18	8,556,561
21	고토대	6,023,000	<17>	103,055	20,080	<93>	Y1,324,507
33	U. of Minnesota	6,200,669	16	117,177	36,900	34	10,831,123
73	Ohio State U.	5,674,784	18	106,945	43,199	25	11,927,635
153-201	Colorado State U.	1,896,848	112	88,690	21,252	90	8,550,597
153-201	Florida State U.	2,620,296	75	91,492	21,598	72	6,903,905
153-201	대만대	2,500,000	<81>	-	26,000	<70>	-
153-201	서울대	2,448,000	<85>	78,000	9,610	<등외>	4,571,930
202-301	북경대	4,610,000	<26>	-	12,000	<등외>	3,100,000
202-301	칭화대	3,000,000	<61>	100,000	10,000	<등외>	2,000,000
202-301	홍콩대	2,170,000	<103>	-	14,000	<109>	-
202-301	연세대	1,477,374	<등외>	67,092	12,961	<110>	3,128,400

〈출전〉 (1) ARL, ARL Statistics 2002-2003(Washington D.C. : ARL, 2004).
 (2) Top 500 World Universities. [http://ed.sjtu.edu.cn/rank/2004/top500\(1-100\).htm](http://ed.sjtu.edu.cn/rank/2004/top500(1-100).htm)
 (3)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y 2003. <http://ed.sjtu.edu.cn/ranking.htm>.
 (4)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연감 2004(서울 : 동 협회, 2004).
 (5) 허성도,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서울 : 동 도서관, 2005).
 (6) < >속의 순위는 ARL 값을 기준으로 한 순위임

〈표 2〉 대학도서관 기본적인 운영 현황

관종별	구분	도서관수	직원수			장서(권)*	연속간행물(종)**	자료구입비(천원)
			사서	비사서	소계			
국·공립대학		60	754	214	968	21,348,911	74,831	36,353,857
사립대학		198	1,612	611	2,223	59,212,833	258,171	108,030,724
전문대학		157	331	260	591	8,991,189	25,522	12,302,973
각종학교		20	30	19	49	546,958	1,292	804,763
계		435	2,727	1,104	3,831	90,099,891	359,816	157,492,317

* 장서수는 국내서·국외서·고서를 더한 수치임
 ** 연속간행물(인쇄형)은 국내 및 국외 연속간행물을 더한 수치임.

〈표 3〉 대학도서관의 해외 지식정보자원 수집 현황

대학	구분	단행본(국외도서)(권)			해외 연속간행물(인쇄형)(종)		
		2004년	2003년	증가량	2004년	2003년	증가량
국공립대학		5,270,179	5,068,538	201,641	26,549	39,653	-13,104
사립대학		15,633,671	15,510,603	123,068	78,044	82,440	-4,396
전문대학		1,159,004	1,149,197	9,807	3,558	3,687	-129
각종학교		65,202	51,767	13,435	322	147	175
계		22,128,056	21,780,105	347,951	108,473	125,927	-17,454

2.4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지표 추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지표의 변화 추이를 조사·분석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의 지표들은 도서관수, 도서관 직원수, 장서수, 연속간행물수, 이용자수, 대출책수,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연도별로 조사 분석하면 특정한 변화 추이가 나타나며, 그 결과는 대학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세우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4>는 한국도서관통계 및 한국도서관연감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지표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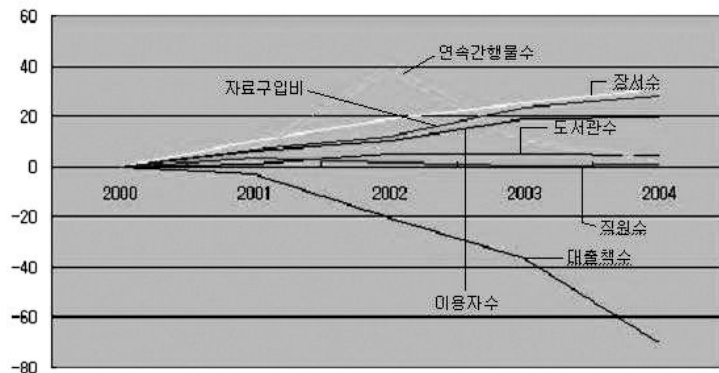
상기 표의 분석 결과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주요 지표별로 특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곽동철 2005). 특히, 최근 5년 동안 국내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인쇄형) 구입 종수와 대출책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연속간행물 구입 종수의 급감 원인은 해외 연속간행물 가격의 급등과 자료구입예산의 완만한 상승 및 동결을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은 대학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도서관의 운영, 도서관 직원 수의 감소

<표 4> 대학도서관의 연도별 주요 지표 변화 추이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도서관수(권)	416	420	436	438	435
직원수(명)	3,802	3,925	3,866	3,814	3,831
장서수(권)	68,665,087	75,837,882	81,612,498	86,152,907	90,099,891
연속간행물수(종)	349,509	369,546	486,766	386,283	359,816
이용자수(명)	56,845,599	60,525,449	62,649,284	67,504,544	67,866,690
대출책수(권)	110,528,109	106,986,736	88,108,530	69,883,517	32,801,051
자료구입비(천원)	122,793,538	131,116,024	137,162,228	151,536,249	157,492,317

<출전> 한국도서관통계 2000, 2001, 2002, 2003 및 2004 한국도서관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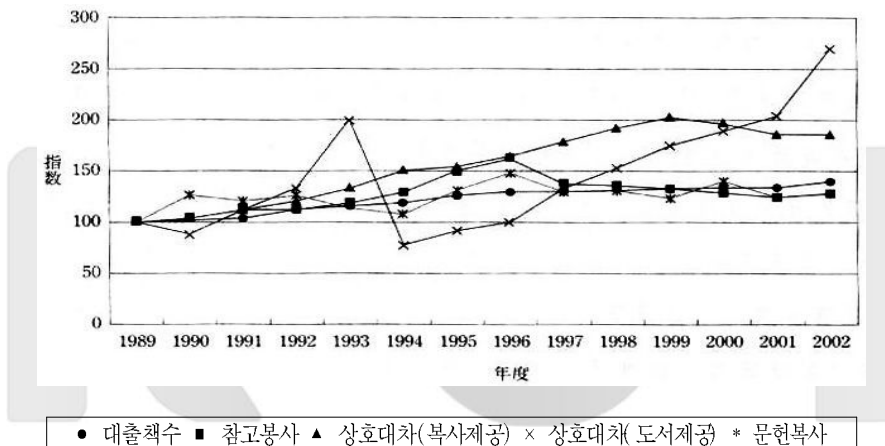


<그림 1> 대학도서관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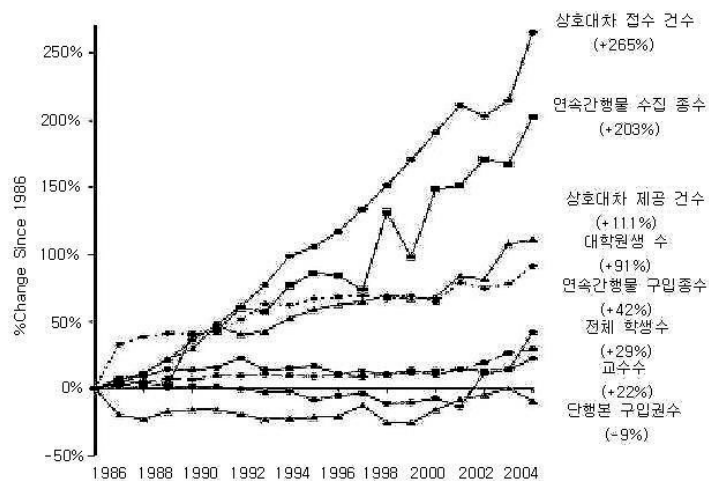
도서관 서고의 개가제 전환, 도서관자료로서 전자출판물의 증가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변화 추이와는 달리 선진국 대학도서관들의 도서관 대출책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逸村 裕·竹内 比呂也

2005). 또한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도서관의 대출책수가 미국연구도서관협회(ARL) 통계 등에 의하면 <그림 3>과 같이 증가하는 통계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ARL 2005). 이러한 선진국의 변화 추이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그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사유를 관찰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2> 일본 대학도서관 직원 1인당 서비스 공급량



<그림 3> 미국 연구도서관의 서비스 공급 및 수요 추이

2.5 대학도서관의 학생 1인당 소장 책수 및 자료구입비 비교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최근 들어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대학도서관과 비교를 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 대학도서관의 소장 책수 및 자료구입비는 일부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장 2005, 윤희운 2004).

이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학생 1인당 소장 책수는 44.2권으로서 OECD 28개 국가 중 2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평균 자료 구입비도 67.9 유로인데 OECD 22개국 중 1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개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 가운데 특히 지식정보는 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해외 지식정보자료의 수집, 축적, 유통과 관련된 제반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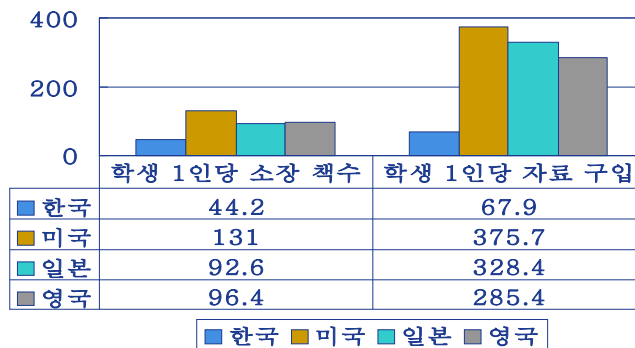
대로 확립되지 않은 우리나라 지식정보자료의 관리 체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3. 대학도서관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안사항 및 문제점은 첫째, 정부정책의 혼선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둘째, 도서관의 조직 체계와 경영관리상의 위기, 셋째, 지식정보자료의 소장과 접근의 조화 문제, 넷째, 신규 사서 인력의 확보 어려움과 재교육 체제의 미비, 다섯째, 기타 도서관의 제반 현안 문제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정부 정책의 혼선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련 정부 정책의 혼선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자치단체)로 다원화되어 있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국가도서관정책 수립기능을 지닌 문화



<그림 4> 대학도서관 소장 책수 및 자료구입비 비교

관광부나 도서관의 건립 및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행정자치부(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정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연구도서관의 성격이 짙은 전문도서관은 각기 모체기관 및 소속 행정부처에서 관장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각 관종별 도서관들이 지식강국화에 제대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전문도서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학술·연구를 기반으로 한 인적자원 및 첨단기술 개발을 목표로 지식정보자원 관리 활용 및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소속 행정부처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나아가 국가 지식정보관리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전체 관종의 도서관을 아우를 수 있는 중앙부처 내의 전담부서 설치, 공공도서관의 범주를 뛰어넘는 도서관 관련 제반 법규의 개정 및 제정, 전문직 사서를 포함한 추진인력의 확보 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더욱이 대학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도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심장, 즉 대학조직의 핵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수·연구·학습의 기본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많은 예산만 투자되지 단시간 내에 과시할 만한 결과가 나오질 않는 기구, 즉 대학의 주변적·비핵심적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총장이 전시행정 또는 치적홍보를 중시할수록 투자 대비 효과가 즉시적이지

않는 대학도서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인색하며, 더구나 대학도서관의 전문인력 충원 및 증원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2005년 3월 5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도서관을 그동안 대학의 지원시설로 분류하던 것을 교육기본시설로 재분류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장을 교무위원에 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대학들이 아직도 대학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도서관장의 자리를 전문직 보다는 행정 보직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3.2 도서관의 조직 체계와 경영관리상의 위기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국가의 경제위기를 맞아 도서관의 조직 체계와 경영관리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선진국 대학도서관들은 조직의 업무 효율성에 중점을 두면서 각각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 보다는 단지 조직과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조직을 통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주도로 IMF이후 다운사이징으로 대학도서관의 인원 감축 및 조직 축소를 위한 무조건적인 조직 통합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 실례로서 이러한 대학들은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자계산소, 시청각실, 박물관을 통합하여 학술정보센터 학술정보처 등으로 기관명을 변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면은 정보기술(IT) 관련 교

수의 도서관장 발령으로 정보기술의 접목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대학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의 축소 및 정체성의 상실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도서관을 대학의 지원시설에서 교육기본시설로 다루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대학도서관을 예전과 같이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 스스로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지식강국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2005년 2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발표한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허성도 2005). 그 주요 내용은 대학도서관의 조직 개편 방향과 대학도서관의 제반 문제 및 대책으로 나뉘어져 다루어지고 있다. 우선 제시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세계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순위가 곧 대학의 순위로 가름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장의 전문직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의 관장은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 및 사서직 중 보임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을 지닌 대학들은 일반 교수를 대학도서관의 관장으로 보직 발령을 할 경우에 부관장(또는 사서장, 사서부장)을 사서직원들 가운데 보임하여 전문직화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은 도서관의 기획 및 대내·외 협력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이 절실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학도서관의

사서에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와 같이 교수 신분을 부여하여 도서관의 위상 및 연구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대학도서관의 기능별 인력구성 비율을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설정하면서, 기존 사서직의 재교육 및 해외훈련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이 교육기본시설로서 위상을 지닐 수 있도록 사서직의 동기부여 및 후생복지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사서들의 연구지원 활동 또는 연구 활동(교수의 연구/강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 전개 및 시스템 구축, 사서들의 연구회 조직, 교수 및 대학 내 연구소의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인력개발 및 조직개발에 반영하는 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3.3 지식정보자원의 소장과 접근의 조화 문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경영상의 위기는 대학도서관 장서수의 심각한 부족 및 전문인력 감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대학도서관 1개관 당 학술지 평균구독종수, 학생 1인당 소장 도서 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외 지식정보자원 부분은 더욱 낮은 수준이며, 최근 전자출판물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욱 빈약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강국화 추진의 일환으로 국·공립대학도서관의 자료구입 예산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도서관의 도서구입 총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료구입량도 예전의 증가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완만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물론 사립대학도서관의 관련 통계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주변 환경 변화 속에 사서직원을 포함한 전체 도서관직원 수가 계속 감소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및 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대학도서관은 주민개방이란 문제에 직면하면서 인력 부족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더욱이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수는 증가하지만 대출도서 수가 감소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매체로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늘려나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교육기본시설로서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의 예산, 인력, 조직체제에 대한 범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정부차원에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충한 후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2005년 2월 작성한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획'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학도서관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그 변화 추세, 약점 및 강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서울대학교 조차도 ARL이나 ACRL의 자료에 의하면 선진국 대학도서관에 비해 소장 장서(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출판물 등)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연속간행물 가격의 폭등, 전자출판물 구독 종수 및 예산의 대폭 증가 등으로 도서관의 예산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소장 장서, 예산 등 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장기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 외에도 전자정보자원(전자출판물, 전자자료)의 문제는 지식정보자원의 소장과 접근의 조화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대학도서관은 전자정보자원의 활용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기존의 인쇄 자료인 종이매체 자료의 중요성 역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향후 장서개발 차원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즉, 대학도서관은 학술연구의 지원과 문화유산의 보존, 그리고 선진국으로부터 지식정보자원의 예측화 방지와 지식정보 주권의 확보란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자자료 또는 디지털자료로 치장되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보자원을 전자출판물로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전자저널(e-Journal), 웹데이터베이스(Web DB), 전자책(e-Book),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구축한 DB(기존 학위논문), 생산단계에서부터 구축한 DB(최근 학위논문, 대학간행물 등) 등이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출판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자출판물들은 매년 대학도서관에서 그 유통이 매년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외국 출판사의 출판 및 가격 책정 정책 변화에 따라 인쇄매체 학술지의 가격 급등과 함께 자료구입 예산의 완만한 증가 또는 감소는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서는 학문 분야별 이용자의 정보이용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인쇄 매체 자료와 전자 매체 자료의 관리 일원화로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3.4 신규 사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재교육 체제의 미비

대학도서관 경영의 활성화는 신규 사서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사서에 대한 재교육 체제의 미비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대학도서관은 신규 사서 인력의 추가 확보 및 기존 사서직의 재교육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국·공립대학도서관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사립대학도서관은 대학본부에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늘어나거나 신규 업무에 대한 사서직의 증원 요구 및 직급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학도서관이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서관 업무에 도입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서관 직원의 증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테면, 대학도서관은 다양한 소장 매체의 디지털화, 지식정보서비스 지원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은 사서직원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과 신기법 등을 도서관 업무에 응용·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 재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기본시설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서직원들의 사기 증진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도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고등교육 기본시설로서 도서관의 사명과 장단기 발전의 비전을 수립·공표하면서 대학도서관을 경영하

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도서관이 도서관의 전문성에 따른 독자적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여 천명하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대학 내에서 교내 부속시설로서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급급한 실정에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대학도서관들도 나름대로의 도서관의 사명 및 비전 설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즉, 2005년 1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발간한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장기발전계획'에서도 대학도서관의 사명 및 비전 설정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학술정보화 현황분석, SWOT 분석, 세부 추진전략 수립, 도서관과 연계한 학술정보화 계획 등을 담고 있다.

3.5 기타 도서관의 제반 현안 문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타 제반 문제들로는 대학도서관의 평가 문제와 대학도서관기준의 현실화 및 법제화 추진, 그리고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 작성상의 문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기적으로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중앙일보사도 주기적으로 대학을 평가하여 부문별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서 대학의 교육기본시설인 대학도서관에 배정한 점수의 비율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도 도서관의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해 현실성이 없거나 도서관 발전을 유도하기에 부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아날로그적 평가지표를 통한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진정한 발전을 염두에 두고 질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학총장을 비롯한 대학당국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지원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대학도서관에 대한 정책 반영, 예산 지원, 인력 충원 및 증원, 조직 구성 등과 같은 도서관의 위상 정립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평가지표는 디지털화한 대학도서관의 환경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 관련 제반 사항을 대학공시제도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도서관의 발전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 관련 평가 항목들이 대학 특성화 사업이나 누리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학도서관기준을 현실화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도서관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법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의 대학도서관기준은 단지 전문직 단체의 권장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대학도서관의 질적 및 양적 수준이 국민소득에 걸맞을 정도로 향상될 때까지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학도서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도서관협회가 실제 대학도서관의 발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담당부서와 함께 공동으로 그러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경영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발표하는 통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일관성, 상세성, 정확성이 결여되면서 부실한 부분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도서관협회의 '도서관통계'나 문부과학성에서 실시하는 '대학도서관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및 미국 연구도서관협회의 'ARL Statistics'에서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수록 내용도 세밀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연도별 비교·분석도 용이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통계자료에서도 해외 지식정보자원구입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이다. 즉, 전자의 경우에 국외 도서의 구입비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정기간행물·해외전자저널·해외 데이터베이스의 구입비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해외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입비는 파악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한 구입비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상기 통계자료들과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 통계 및 도서관연감, 한국 교교육부·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 등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이 각기 서로 달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상세한 조사 내용 및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야 하며, 상기한 통계자료의 일관성, 정확성, 및 상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도서관 실태 조사 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

부 차원에서 각종 유관 기관과 단체의 통계 중복 조사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통일된 통계 항목과 정의를 사용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4. 대학도서관의 환경 분석과 발전 전략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정보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술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술정보자원의 수집과 축적 및 이에 대한 정보서비스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수년전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예산의 감소, 인원 감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아직도 그 여파를 감내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나마 다행으로 1999년 12월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석상에서 도서관 관련 발언을 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관계 장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곧이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000년 3월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도서관정보화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대학도서관의 목록 및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2002년 11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대학도서관을 지식강국 구현을 위한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국내 대학도서관의 현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선진국들과 경쟁하고 좀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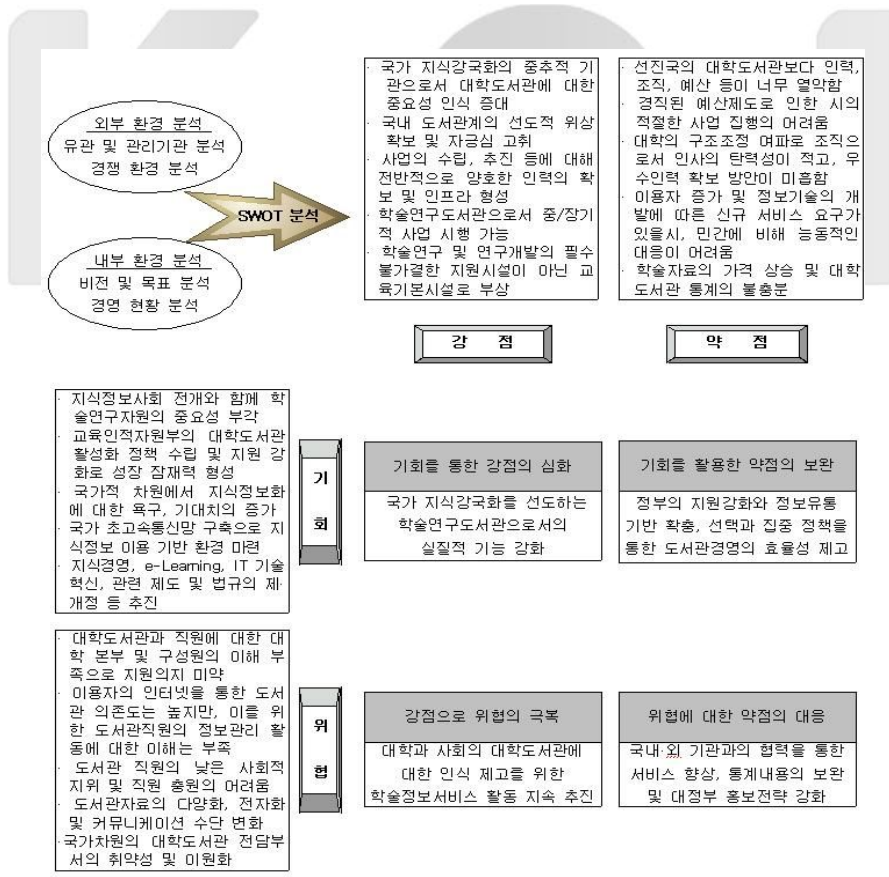
늦출 수 없는 많은 현안 사항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식강국의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그 수행 목표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육성하고, 또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국가지식뱅크(National Knowledge Bank)를 구축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촉진, 국내·외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로 나누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대학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학술정보 생성 및 유통시스템을 보급하며, 학술원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학술정보자원관리사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학술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과제는 세부사업으로 국내 학술정보의 공동이용 체제를 구축하고, 해외 학술정보의 연계 이용체제를 구축하며, 학술정보서비스(RISS)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대학도서관대회를 개최하고, 대학도서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대학도서관의 평가 및 도서관 직원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조사·분석한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 및 최근 정부차원의 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대

학도서관에 대한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그림 5>와 같다. 이 그림은 SWOT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과 지식정보관리기관 및 경쟁기관 등에 대한 외부 환경 분석, 그리고 대학도서관의 비전과 목표 및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명시하였다. 그러한 후에 이러한 요인들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도출하여 시행해야 한다. 첫째, 기회를 통한 강점의 심화 전략으로 국가 지

식강국화를 선도하는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회를 활용한 약점의 보완 전략으로 정부의 지원강화와 정보유통 기반 확충, 선택과 집중정책을 통한 도서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강점으로 위협의 극복 전략으로 대학과 사회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학술정보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위협에 대한 약점의 대응 전략으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통계 내용의 보완 및 대정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그림 5>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도출

5.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개선 방향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 및 추진 계획은 전술한 대학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출한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금까지 조사·분석된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 및 정부차원의 발전계획 등을 접목하여 수립하고자 한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내부 및 외부 환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즉, 대학도서관은 국가 지식강국화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 도서관계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다른 관중의 도서관에 비해 사업의 수립, 추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인력 확보 및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 중·장기적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의 필수불가결한 지원시설이 아닌 교육기본시설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약점도 지니고 있다. 우리 대학도서관은 선진국의 대학도서관보다 인력, 조직, 예산 등이 너무 열악하고, 경직된 예산체도로 인해 시의 적절하게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우며, 대학의 구조조정 여파로 조직으로서 인사의 탄력성이 적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며, 이용자 증가 및 정보기술의 개발에 따른 신규 서비스 요구가 있을시 민간에 비해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고, 학술정보 자료의 가격 상승 및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강점이나 약점도 도서관 주변 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에 따라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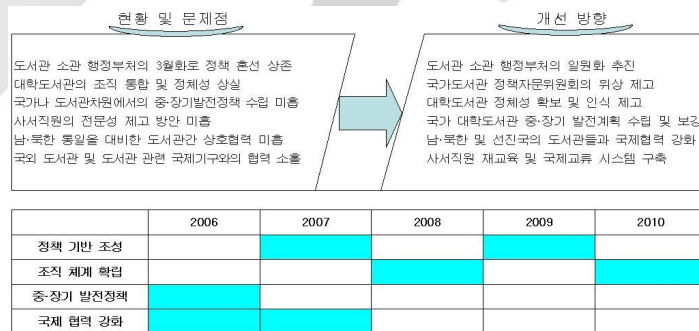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기회요인으로는 지식정보사회 전개와 함께 학술연구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지원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형성하고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술정보화에 대한 욕구 및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초고속통신망 구축으로 학술정보 이용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식경영, 이러닝(e-Learning), 정보통신 기술 혁신 관련 제도 및 법규의 제·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그 위협요인으로는 대학도서관과 직원에 대한 대학 본부 및 구성원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의 지가 미약하며, 이용자의 인터넷을 통한 도서관 의존도는 높지만, 이를 위한 도서관직원의 정보관리 활동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도서관 직원의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직원 충원의 어려움이 있으며, 도서관자료의 다양화와 전자화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고, 국가차원의 대학도서관 전담부서의 취약성 및 이원화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 요인을 함께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을 이와 관련 지위 추진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첫째, 기회를 통한 강점의 심화 전략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 지식강국화를 선도하는 학술연구도서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일과 도서관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둘째, 기회를 활용한 약점의 보완 전략이다. 정부는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강화와 학술정보유통 기반 확충, 선택과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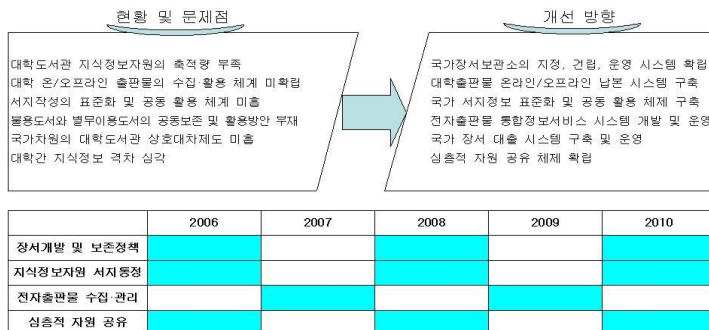
중 정책을 통한 도서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국내 대학의 상황을 고려할 때 명확한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제정 및 시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강점으로 위협의 극복 전략이다. 대학과 사회의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술정보서비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형성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위협에 대한 약점의 대응 전략이다. 대학도서관은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 도서관 관련 통계 내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로 대정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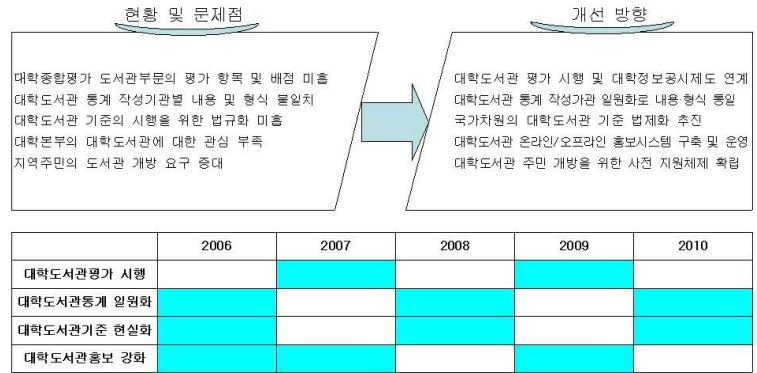
지금까지 조사·분석된 우리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들도 위의 네 가지 전략들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략들을 결합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정부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현안 사항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향후 5년 기간 동안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 일정 계획과 함께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면 <그림 6>, <그림 7>, <그림 8>과 같다.



<그림 6> 국가 대학도서관정책 추진기반 강화



<그림 7> 지식정보자원 유통 인프라 구축



〈그림 8〉 대학도서관의 평가·통계·홍보 전략 수립 및 시행

6.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정책 로드맵 작성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정책 방향 로드맵은 지금까지 조사·분석된 대학도서관의 현안 사항과 문제점 및 정부차원의 발전계획, 그리고 선진국의 대학도서관 발전전략 등¹⁾을 참조하여 다음의 〈그림 9〉와 같이 개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의 설정과 추진 계획의 수립은 전술한 대학도서관의 추진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안 사항 및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3단계로 구분하면, 〈그림 10〉과 같이 제1단계는 기반조성단계, 제2단계는 확산단계, 제3단계는 성숙단계로 나눌 수 있다.

상기 〈그림 10〉의 단계별 일정 및 추진 계획에 따라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들은 도서관정책 혼선 배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도서관 조직 정비 및 경영위기 극복, 학술정보자원의 소장 및 접근성 향상, 도서관 사명과 비전 수립, 대학도서관의 주기적인 평가 및 지침 개발, 대학도서관 통계 작성

1)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ARL), 2005. ARL Statistics: A Compilation of Statistics from the One Hundred and Twenty-Thre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ompiled by Martha Kyrellidou and Mark Young. Washington, D.C.: ARL.
 〈http://www.arl.org/stats/pubpdf/arlstat04.pdf〉 [Online] [Access 2005.12.19]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ALIA), 2005. "Federal Budget 2004."
 〈http://alia.org.au/publishing/budget.analysis/2004.html〉 [Online] [Access 2005. 9.27]
 Brewer, Joseph M., et al. 2004. "Libraries Dealing with the Future Now." *ARL Bimonthly Report*, 234.
 〈http://www.arl.org/news/tr/234/dealing.html〉 [Online] [Access 2005.8.29]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CAUL), 2005.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Participating Universities."
 〈http://www.anu.edu.au/caul/ula/participants.html〉 [Online] [Access 2005.11.6]
 U.S. Dept. of Education, 20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The Conditions of Education, 2001-2005. 5. Contexts of Secondary Education. College Resources: Electronic Services in Academic Library.
 〈http://nces.ed.gov/programs/coe/2005/section5/indicator33.asp〉



〈그림 9〉 대학도서관의 정책 로드맵

제1단계 (2006-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의 혼선 배제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도서관 조직 체계 정비 및 경영위기 극복 - 학술정보자원의 소장 및 접근 정책 수립 - 남·북한 및 국외 도서관간 국제협력 기반 확립 - 대학도서관의 주기적인 평가 계획 및 지침 개발 -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 작성 기준 및 형식 설정
기본조성 단계	
제2단계 (2008-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의 이견 조정 및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 - 교육기본시설로서의 도서관 조직 정비 및 예산 확보 - 학술정보자원의 소장 및 접근 비율 향상 - 직급별 사서직 증원 및 도서관 사명과 비전의 설정 - 대학도서관의 주기적인 단독 평가 실시 -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 양식의 통일 및 공동 활용
확산 단계	
제3단계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의 통합화 및 사회와 도서관의 공존 - 대학의 기본교육시설로서 대학도서관의 역할 회복 - 학술정보자원에 대한 소장 및 접근의 원활화 - 도서관 전담부서 설치 및 도서관 사명과 비전 수정 - 대학도서관 평가 결과와 대학정보 공시제도의 연계 -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의 작성 기관 및 형식 일원화
성숙 단계	

〈그림 10〉 단계별 일정 및 추진 계획

형식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국가 대학도서관정책 추진기반 강화, 둘째, 지식정보자원 유통 인프라 구축, 셋째, 대학도서관의 평가·통계·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의 중분류로 나누어지고, 각 중분류는 다음과 같이 소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한 중분류에 속

한 항목에 따라 각각의 단계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계획들은 〈표 5〉, 〈표 6〉 그리고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사업별 로드맵은 별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의 로드맵은 과제명, 추진목적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소요예산, 로드맵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표 5〉 국가 대학도서관정책 추진기반 강화 계획

중분류	소분류	기본 조성 단계	확산 단계	성숙 단계
		제1단계(2006-2007)	제2단계(2008-2009)	제3단계(2010-)
국가 대학 도서관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책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 도서관 관련 행정부처 다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관련 법규의 제정·개정 등 정비 · 도서관 관련 행정부처 일원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 기준 적용 활성화 · 관련 법령 개정 및 도서관 관할 행정부처 일원화
	조직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근무 사서직수 증원 노력 · 대학도서관 사서직의 재교육 실태 조사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체성 확보와 조직개편 방안 수립 · 대학도서관 사서능력개발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전담부서의 설치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교류 추진
	중·장기발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 대학도서관 사명·비전 수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대학도서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대학도서관 사명 및 비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대학도서관기본계획의 성과분석 및 평가 · 대학도서관 사명·비전의 업그레이드
	국제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통일 대비 도서관 협력체계 확립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도서관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도서관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표 6〉 지식정보자원 유통 인프라 구축 계획

중분류	소분류	기반 조성 단계	확산 단계	성숙 단계
		제1단계(2006-2007)	제2단계(2008-2009)	제3단계(2010-)
지식 정보 자원 유통 인프라 구축	장서 개발과 보존정책	· 장서개발정책 수립 · 국가 장서보관소운영 연구	· 대학출판물 전자납본 체제 확립 · 국가 장서보관소지정 및 운영	· 대학도서관 장서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 국가 장서보관소설치 운영
	정보 자원 서지 통정	· 서지 작성 표준화 방안 수립 · 비도서자료의 관리방안 연구	· 서지 공동작성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 분야별 시소러스 구축 및 통합	· 국가 서지정보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분야별 시소러스 통합
	대학생산 정보공동 활용	· dCollection 시스템 보급 확대 · 전자출판물 표준생성시스템 개발 및 보급	· dCollection 시스템 보급 완료 · 전자출판물 공동활용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학술정보 제공 및 이용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 전자출판물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심층 자원 공유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시범설치 · 국가지식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운영실적 평가 · 학술정보 유통기관간 역할분담 명확화	·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설치확대 · 해외 학술정보 유통기관과 연계 강화

〈표 7〉 대학도서관 평가·통계·홍보 전략 수립 및 시행 계획

중분류	소분류	기반 조성 단계	확산 단계	성숙 단계
		제1단계(2006-2007)	제2단계(2008-2009)	제3단계(2010-)
대학 도서관 평가·통계·홍보 전략수립 및 시행	도서관 평가 시행	· 3주기 대학종합평가인증제를 위한 도서관분야 평가지표 수정	· 신규지표에 의한 대학도서관 평가실시 · 대학 정보 공시제도와 연계 방안 수립	· 대학도서관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서관통계 일원화	· 대학도서관 통계 조사기준 조사항목의 일원화	· 대학도서관 통계 작성기관의 일원화	· 대학도서관 온라인 통계 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서관기준 현실화	· 대학도서관 기준의 수준과 개발 방향 설정	· 대학도서관 기준의 현실화 및 개선방안 모색	· 선진국 수준의 대학도서관 기준 상향 조정
	도서관 홍보 강화	· 대학도서관 홍보 기본계획수립 · 대학도서관 주민개방에 따른 문제점 조사·분석	· 대학도서관의 대상별 세부적 홍보전략 수립 및 시행 · 대학도서관과 지역주민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 대학도서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평가에서 대학도서관 지원 항목 추가

7. 결론

오늘날 어느 한 국가가 확보·활용하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간접자원으로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직접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기반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 국가의 장래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달려 있으며, 이것을 지원

하는 핵심기관은 대학의 심장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대학도서관은 선진국 수준의 충분한 학술연구정보를 확보하여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나에 달려 있다. 이처럼 한 국가의 지식강국화와 학술정보자원의 유통 인프라 강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주요 연구개발 관련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대학도서관의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대학의 순위와 대학도서관의 주요 지표들의 순위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테면,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그 대학의 위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정권 교체기마다 과학기술입국 및 대학교육의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학술연구의 중추 인프라로서 대학도서관을 발전·강화시키는데 거의 무관심한 자세를 취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유수의 대학도서관들도 학술연구지원을 위한 양질의 학술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학도서관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다른 인프라와 더불어 학술연구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신속한 제공을 위한 국가차원의 학술연구정보 유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학술연구가 충실해지고 대학교육의 선진화가 가능하며,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강국화를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구정보 유통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그 가운데 대학도서관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각 종별 도서관들이 3개 이상의 중앙 부처들 가운데 어느 한 부처에 각기 소속되어 있지만,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이 전화를 걸어 도서관 문제를 상의할 부서명을 중앙부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전체 행정부처 가운데 부서명에 '도서관'이란 단어를 갖고 있는 부서는 전무한 상태이다. 심지어 교육이나 문화를 관장하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조차도 그러한 부서명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관 관련 행정부처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중앙행정부처 내에 도서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부부처별 사서직원 증원 배치와 직급 상향 조정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연후에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 간 연계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지식강국화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담당할 대학도서관의 경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차원의 도서관 중·장기 발전정책에 의거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부서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대학도서관의 상호 교류 방안을 수립하고, 국외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도서관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수년전 IMF로 인해 국가 경제위기 이후 심한 타격을 입은 대학도서관이 정체성을 확보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체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거의 1/2 수준으로 감소된 전문 인력의 증원과 부서 개편의 동인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선진화를 위해 제

반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사서 직원의 재교육 및 국제 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가 국가차원의 대학도서관 문제를 긴밀히 논의할 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제는 대학도서관의 관장이나 부관장직이 보직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문직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식정보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소장 장서 수와 대학의 순위가 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불용 도서나 별무이용 도서를 제적 또는 폐기 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소장해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도 국내 대학도서관들 가운데 일부는 '도서관장서 몇 백만 권 달성'이란 목표를 세워두고, 도서관 서고 공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혀 찾지 않는 장서일지라도 소장하고 있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우리 대학도서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역별 보존도서관(국가장서보관소)을 지정하거나 건립하여 운영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대학출판물의 전자납본 및 아카이빙시스템, 국가서지정보 표준화 및 공동 활용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주기적인 자료 유형별 이용 패턴을 조사하며, 대학구성원들이면 누구나 어느 대학도서관의 장서이건 이용할 수 있는 국가장서대출체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넷째, 대학도서관이 국가의 지식강국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채택과 당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제고하자면 대학도서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학지원사업 및 대학 정보 공시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대학도서관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 통계의 작성기관 일원화 및 공동 활용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도서관 관련 통계가 작성기관에 따라 그 항목과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식정보자원 확보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가 차원에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포함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설정하고, 각 사업의 로드맵을 작성해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및 지식정보 자원의 개발을 대표하는 정부부처이므로 그 위상에 부합되는 지식정보자원 유통 인프라(법규, 정책, 세제, 교육, 민간자원봉사조직 등)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도서관도 스스로를 상품화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대학도서관은 주민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보완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대학도서관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곽동철. 2003.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제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곽동철. 2005. “대학도서관의 중장기 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 설정.”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제25차 관리자 세미나 자료집(제주: KAL호텔, 2005. 10. 6-8), 13-47.
- 곽동철·윤정옥·김기태. 2005.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보화지원과장. 2005. “대학도서관 활성화 정책 방향.” 『전국대학교도서관대회 발표자료집』. 4.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2004.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직원명부” 『국립대학도서관보』, 193-265.
- 서혜란. 2004. “미국의 대학평가인정기준에 나타나는 대학도서관 평가기준의 최근 동향”, 『한국비블리아』, 15(2): 255-270.
- 인승대. 2005. “Scholarly Communication Trend.” 『2005 EBSCO Seminar』. 10-28.
- 윤희윤. 2004. 『OECD 국가의 대학도서관 분석과 시사점』.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이용재. 2002. 디지털시대 대학도서관의 경영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4): 293-309.
- 이재환. 2003.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정보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 逸村 裕·竹内 比呂也. 2005. 『変わりゆく大
學圖書館』. 東京: 勤草書房.
- 임명순·오동근 공역. 1997. 『도서관·정보센터 경영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정희식. “국가지식자산의 확충.”
http://hirizine.com/file_pds/pub01/200301/KER200301_03.pdf
- 최원태. 2003. 『효율적인 학술정보 유통을 위한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도서관협회. 2004.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2005. 『회원교편
람』. 수원: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허성도. 2005. 『서울대학교 도서관 장기발전계
획』. 서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 ARL. 2005. “Expenditure Trends in Canadian
ARL Institutions, 1986-2004: Median
Values for Time-Series Trend.”
http://www.arl.org/stats/arlstat/graphs/2004/aexp04_can.pdf [Online]
[Access 2005.11.26]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ARL). 2005.
ARL Statistics: A Compilation of Statistics
from the One Hundred and Twenty-
Thre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Compiled by Mar-
tha Kyrillidou and Mark Young. Wa-
shington, D.C.: ARL.
<http://www.arl.org/stats/pubpdf/arlstat04.pdf> [Online] [Access 2005.12.19]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ALIA). 2005. "Federal Budget 2004." <http://alia.org.au/publishing/budget.analysis/2004.html> [Online] [Access 2005.9.27]
- Brewer, Joseph M., et al. 2004. "Libraries Dealing with the Future Now." *ARL Bimonthly Report*, 234. <http://www.arl.org/newsltr/234/dealing.html> [Online] [Access 2005.8.29]
-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CAUL). 2005. "University Library Australia - a national borrowing scheme for students and staff: Participating Universities." <http://www.anu.edu.au/caul/ula/participants.html> [Online] [Access 2005.11.6]
-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 (CAUL). 2004. CAUL Statistics: 2004 Academic Libraries. <http://www.caul.edu.au/stats/caul2004.xls> [Online] [Access 2005.11.7]
- Lorcan Dempsey, "Looking at libraries," Net-Library Publishers' Summit(OCLC, 15-17 June 2005). <http://www.oclc.org/research/presentations/default.htm>
-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Librarians and the Office of Systemwide Library Planning. 2004. "Systemwide Strategic Directions for Libraries and Scholarly Informati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pared for the Systemwide Library and Scholarly Information Advisory Committee." <http://libraries.universityofcalifornia.edu> [Online] [Access 2005.8.26]
- U.S. Dept. of Education, 20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The Conditions of Education, 2001-2005. 5. Contexts of Secondary Education. College Resources: Electronic Services in Academic Library. <http://nces.ed.gov/programs/coe/2005/section5/indicator33.asp>